

**34**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문문학)

- ① [A]는 사건의 압축적 제시와 대화 장면의 제시를 통해 사건 전개와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② [B]는 장면 묘사를 통해 인물의 상상과 현실 사이의 대립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 [B] 모두 회상을 통해 사건의 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 [B] 모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 수능 수준에서는 '서술자의 개입'과 같은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 ⑤ [A]는 세속적 공간을, [B]는 초월적 공간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세속적 공간 : 현실 세계 (자연 제외) / 초월적 공간 : 비현실적 세계 / 내적 갈등 :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괴로움' 정도로 생각 가능하니 너무 좁게 보지 마세요.

**38**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운문문학)

- ①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반성 :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에 대한 진지한 생각' 정도만 있으면 돼요.
- ④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문문학)

- ① 상징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얼마나 빈번해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은 의미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빈번하면 빈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은 '보편적인 내용'만 물어본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런 선지는 답이 되기 힘들어요. 답이 되려면 진짜 엄청나게 변해야 할 겁니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운문문학)

①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 대구적 표현 : '비슷한' 시구, 문장 형식을 나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나에게 돌아오기가 어렵고 힘든 걸 알아 / 이제 더는 상처 받기가 두렵고 싫은 걸 알아 → '~가 ~고 ~ 한 걸 알아.'라는 문장 형식을 반복) / 시상 강조 : '주제 의식 부각'처럼 모든 시에서 맞는 선지예요.

②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③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적인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하나의 감각적 심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하는 것입니다. (ex. 푸른 종소리 →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하나의 대상 속에 두 심상을 녹여내고 있죠.) : 단순히 감각적 심상을 나열하는 '복합 감각적 심상'과는 다릅니다.

(ex.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 후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가 나오지만 두 대상이 같은 대상은 아니므로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직 수능 및 평가원 시험에서 이 둘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지만 불안하다면 검색 등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다.

⑤ 과거 회상을 통해 반성적으로 화자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문문학)

① 대화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②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③ 역전적 시간 구성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역순행적 구성'과 같다고 봐도 됩니다. 현재에서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야 해요.

④ 감각적인 수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⑤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적인 지성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38**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운문문학)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②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대화의 형식 = 대화적 구성 = 대화 : 화자의 말과 청자의 '대답'이 필수적이에요. cf) 대화체 = 말을 건네는 방식 : 화자의 말만 있으면 되고, 청자의 대답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알아 두시면 됩니다. 수능에서 이걸로 변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 화자의 감정(반응)과 같은 감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ex. 화자가 이별한 상황에서 → 저기 가는 저 기러기 슬피 운다.)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1. 허용 가능성 평가

본격적으로 문학을 정복해 봅시다. 먼저 가장 중요한, 수능 문학 문제풀이의 대원칙부터 세워봅시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실전’에 맞춘 이야기입니다. 너무 과하게 실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R step에서 꼼꼼하게 채워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주세요. 왜 실전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체화하시면, ‘문학이 어려워요.’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한 번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문학을 잘한다고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다 맞는 것? 해석을 엄청나게 잘 해내는 것?

저는, ‘빠르게’ (20분 내) 다 맞는 정도가 되어야 ‘문학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국어 시험에서 결국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요소는 ‘독서’이고, 애초에 요구하는 사고의 깊이가 차원이 다른 독서에선 시간을 확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을 ‘빠르게’ 다 맞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문학을 ‘빠르게 다 맞기’ 위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제 교재로 공부하면서 단순히 ‘정답률이 올라갔다’가 아니라 ‘빠르게 다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신문 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기사이자 ‘미국인도 틀리는 수능 영어?!?’와 함께 수능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단골 레퍼토리이기도 합니다. 이 파트는 이 기사의 내용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OOO 시인 “내 시가 출제됐는데, 나도 모두 틀렸다.”**  
- ‘모의수능에 단골로 등장하는 작가’ 문학교육에 쓴 소리  
OOO 시인이 “내가 쓴 시가 나온 대입 문제를 풀어 봤는데 작가인 내가 모두 틀렸다”고 말했다. ~ 그는 “작가의 의도를 묻는 문제를 진짜 작가가 모른다면 누가 아는 건지 참 미스터리”라며 쓴소리를 했다. ~

아마 관련 내용을 본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명 시인이 TV 프로그램에 나와 모의고사에 나온 본인의 시와 관련된 문제를 풀었고, 모두 틀리자 ‘시인도 틀리는 수능 문학!’이라는 프레임으로 수능을 공격한 사건이죠.

일단 이 기사 내용은 해당 문제가 수능 문제도,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도 아닌 ‘교육청 문제’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판 속에는 수능 문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수능 문학에서는 작가의 의도를 묻고자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존재하지만, 어쨌든 묻고자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오히려 정말 철저하게 ‘문학’의 본질적인 내용을 건드리고자 노력하는 시험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문학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하나의 작품이나 단어, 문장에 대해 감상자들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것은 감상자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가진 배경지식, 또 감상할 당시의 심리 상태 등이 반영되어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와닿지 않는다면, 예시를 들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시구가 있다고 합시다.

## ‘내 마음은 호수요.’

이 시구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것 같은가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대답은, ‘내 마음이 넓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타당한 해석이기도 하고, 호수의 ‘넓다’는 속성을 이용한 훌륭한 해석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호수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푸른 산 속에 노루가 뛰어놀고, 그 산 속 한가운데에 있는 호수.. 그 호수의 물을 먹는 노루들이 뛰어 노는 ‘평화롭고 깨끗한 분위기’. 이런 이미지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며 ‘마음이 깨끗하다’ 혹은 ‘마음이 평화롭다.’라는 해석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시구에 대해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해석 중, ‘맞는’ 해석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세 개 다’입니다. 셋 다 호수의 이미지를 생각 했을 때 딱히 틀린 게 없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선지들입니다. 이렇듯 문학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을 다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수능’이잖아요? 수능이 어떤 시험입니까? 본질적으로는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하고 ‘등급’을 나누기 위한 시험입니다. 등급을 나누기 위한 시험이라면 당연히 ‘정답’과 ‘오답’이 있어야하고, ‘정답’과 ‘오답’이 있으려면 또 당연히 ‘틀린 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라면, 수능 문학 시험에서 틀린 선지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관성을 인정한다면 모든 선지가 다 ‘허용’할 수 있는, 딱히 틀린 것이 없는 것들이 될 테니까요. 평가원은 여기서 고민했을 겁니다. 문학의 본질적 속성인 ‘주관성’을 인정하면서 ‘틀린 선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고민 끝에 평가원이 선택한 방법은, ‘팩트로 따졌을 때 틀린 말’ 만들기였습니다. ‘해석’이라는 것이 주관적일 수 있다면, 그 작품의 맥락이라는, 객관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했을 때 틀린 선지가 곧 틀린 선지가 된다는 것이죠.

아직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설명해봅시다. ‘내 마음이 호수요.’라는 시구를 ‘내 마음이 불타고 있다!’라고 해석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이 해석은 ‘틀린’ 해석이 되겠죠? 호수는 누가 봐도 물인데, 그것을 불이라고 표현했으니 ‘누가 봐도 틀린 해석’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보기>나 다른 시구에 의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 시구만 보고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이제 조금 이해되시나요? 이런 선지를 찾는 것이 수능 문학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일은 이러한 ‘허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즉 ‘팩트’에 근거해도 딱히 틀린 것이 없는 선지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문학 문제를 풀기 위해 ‘작품을 완벽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우리에게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고등학생 수준에서, 심지어 시간 제한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작품을 확실하게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친절하게도 해석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기>와 선지를 이용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위에서 말했던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평화롭다.’, ‘마음이 넓다.’ 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마음이 불타고 있다.’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저걸 찾으려면, 호수가 물이라는 것만 파악하면 되겠죠. 우리가 굳이 ‘호수가 넓다’는 해석을 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호수가 넓다’는 말을 보고, ‘음 이 정도면 딱히 틀린 게 없네.’라는 생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선지의 해석을 ‘평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해설 p.167)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A]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셋벌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B]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02**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웃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새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0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 ①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군.
- ②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주는군.
- ③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군.

### 3. 2021학년도 수능

가장 최근의 수능, 2021학년도 수능입니다. 올해와 문제 수는 다르지만, 문는 내용은 똑같으니 집중해서 풀어봅시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25분을 재보도록 합시다! 딱 3지문입니다. 나름대로 시간 배분을 하면서 확실하게 풀어보세요. 난이도는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미 풀어봤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해결해봅시다.

먼저 25분을 재고 풀어 주시고, (만약 시간이 오버된다면 꼭 풀이를 멈춰 주세요. 본인이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점을 해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한 뒤 그 전까지 한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통해 분석을 해 봅시다. 꼭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석해야 해요! 직전 시험만큼 분석의 중요도가 높은 지문들은 없으니까요.

또한 문제를 다 풀어보신 뒤에는 오른쪽의 '자가 점검' 페이지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국어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자가 점검

걸린 시간:  분 / 25분

맞은 개수

[22~25]:

[31~33]:

[38~42]:

[43~45]:

틀린 이유 & 어려웠던 점

[22~25]:

[31~33]:

[38~42]:

[43~45]:

- 시에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요소에 주목하며 답을 찾았는가?

- 소설의 4가지 포인트들을 착실하게 체크하고 내용을 이해하며 해결했는가?

- 답을 고르기 힘들 때 선지들 간의 '애매함' 비교가 아닌, '문학의 독서화 경향'을 생각하며 답을 골랐는가?



1. 문학의 독서화 경향

[1~3] 2021.06 [22~24] ☆☆☆

문학 문제는 항상 <보기>를 먼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보기]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에 대한 <보기>입니다.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작품인데, 도시라는 삭막한 환경에서도 억지로 적응하는 모습에서 동질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 대단한 내용은 아니죠? 바로 지문 읽어봅시다.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실전 독해

화자는 ‘홀로’ ‘긴 밤’을 무언가를 ‘간구하면서’ ‘울어’ 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언가 부정적인 상황과 반응을 내뱉고 있어요. ‘이 아침’에도 가슴은 ‘사늘’하고 그런데, 시상이 전개될수록 ‘꽃다운 하늘’, ‘떠오르는 햇살’, ‘피가 도는 입술’, ‘즐거이 노래’, ‘향기로운 싸릿순’, ‘맑은 바람’ 등의 긍정적인 상황과 반응으로 바뀌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특이하게 ‘상황과 반응의 변화’라는 요소가 녹아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후적 독해

높으디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산마루에 못 박힌 듯 기대어서, 즉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화자는 ‘긴 밤’을 무엇인가 간구하며 울어 왔다고 합니다. 화자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나봐요.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긴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생겼어요. 화자의 ‘반응’이 변할 수도 있겠죠? 보아하니, 화자의 핏줄, 가슴의

한복판 등으로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화자가 기다리던 게 온 것일까요? 계속 읽어봅시다.

| **생각 심화** |

시에서 '종소리'는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의 종소리, 제야의 종소리 등은 모두 '수업시간/쉬는시간', '연도'의 '변화'를 나타내듯이 말이죠. 여기서도 '종소리'가 들려오면서 화자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아침이 되고 나니, 눈감아도 '꽃다운 하늘'이 보입니다. '긴 밤'이라는 어둠 속에서 나래를 떨던 샛별은 이제 숨어야겠죠? '어둠'은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으니까요.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이마 우'도 환히 트이고, '햇살'도 떠오르고, '입술'에 피도 듭니다. 모든 것에 생명력이 부여되고 있어요. 이제 '밤'을 지났으니, 화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새'들도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의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고 합니다. '싸릿순'은 채소의 일종인데, 그동안 '사슴', '토끼'가 많이 먹었으니 양보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화자는 그냥 좋은 건 다 가지고 싶나봐요.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다시 높으디높은 산마루입니다. '긴 밤' 때와는 달리, '맑은 바람' 속에 홀로 선 화자는 다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조가 훨씬 희망적입니다. '시간'이라는 상황이 변하면서 화자의 반응도 변하는 모습을 나타낸 작품이네요. 이 정도로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실전 독해**

'도시' 속에 있는 나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치욕으로 푸르다'와 같은 표현에서 '반어법'도 드러나고 있죠? 자세한 건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는 딱 이 정도만 읽도록 합시다.

## 사후적 독해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나무에 꽃이 핀 모습을 도시가 가르쳐 준 '반어법'으로 표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르면, 삭막한 도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는 모습을 '반어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죠?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끝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삭막한 도시 속에서 꽃을 피운 나무처럼, 화자도 속마음을 끝이곧대로 드러내기 어려운 도시에서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며 살아 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화자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무'의 이야기를 빌린 거예요.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사실상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해 주고 있죠? 나무를 '스승'이라고 부르면서 동일시하는 모습입니다.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삭막한 도시 환경에서 피워 낸 꽃이기에 나비나 벌들이 뜯어 먹기에 알맞지 않음에도, 벌레들은 변함없이 나무의 이파를 뜯어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화자는 '치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나무'가 처한 환경을 보면서 '치욕'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읽을 수 있겠죠?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1 ③ (풀이 순서: 3)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10%	68%	12%	6%

① (가)에서 '계절의 변화'가 있었다구요? 이런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나) 역시 '공간 이동' 같은 엄청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구요.

② (가)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나온 것은 당연한데, '자연의 위대함'이요? 이를 허용할 만한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절대 허용할 수 없어요. 또, (나)의 경우 '붕붕', '아삭아삭'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충분히 찾을 수 있지만, 이것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다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죠? '두려움'과 같은 반응을 허용하려면 정말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요.

③ (가)에 '명령형 어조'가 나타나지는를 묻고 있으니 어미 부분만 쪽 살피면 되겠습니다. '숨으라', '사양하라'라는 엄청난 명령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 숨는 행동, 사양하라는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나)의 경우, '것이다, 푸르다'와 같은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구요.

### FAQ

Q '단정적 진술'은 어느 정도일 때 허용되나요?

A '의문형' 혹은 '추측성 표현'이 쓰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허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애초에 이 지문에선 '것이다'라는 식으로 아주 단정적인 느낌이 들죠? 이렇게 확실한 것만 물어 봅니다. 애매하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④ (가)에서는 '나래 떨던 샛별'이라는 사물에게 '숨으라'라는 말을 건네고 있죠? '숨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니,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한다는 건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숨으라는 건 화자의 소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구요. 하지만 (나)에선 인격화된 '나무'라는 사물은 있지만, 이 나무에게 말을 걸거나 소망을 전하는 모습은 없죠? (나) 때문에 허용할 수 없네요.

⑤ (가)에서는 아예 도치된 표현이 없고, (나)에서는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에서 도치된 표현은 나타나지만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라는 무시무시한 반응을 허용할 만한 근거가 없죠? 근거가 없으면 허용할 수 없어요!

둘의 공통점을 묻지 않고 각각의 특징을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시간 오래 쓰라고!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천천히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주제 의식'이라는, 거시적인 내용이 정답으로 제시된 모습이기도 하네요.

## 2 ④ (풀이 순서 : 1)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1%	8%	6%	46%	9%

① (가) 시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선지입니다. 어려운 해석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건 없어요. 맥락을 바탕으로 '독해'해보고, 허용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허용해주면 됩니다.

[A]에서 화자를 옮겨 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아직 오지 않아서 이를 간구(바라고 구함)하고 있으니 '무언가가 아직 오지 않음'을 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B]에서 화자가 '기다리려는 대상' 역시 '무엇'입니다. 조금 헛갈리긴 하지만 다시 정리해보면, 화자는 '무엇'이 오지 않았다는 '문제' 때문에 울었고, 그 '무엇'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기다림의 대상인 '무엇'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무엇이 오지 못한 상황'이니, 둘은 다르다는 내용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학 문제가 아니라 독서 내용일지 문제 같아요. 중요한 건, 이런 선지를 '허용'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이 선지를 답으로 고른 31%의 학생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선지에서 묻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체크하고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는 갖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울어 왔는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B]의 '웃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것은 '무엇'이 오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③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상황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죠? 미리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이 선지를 읽고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④ '나래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각각 화자가 '숨으라', '사양하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일단 '나래 떨던 샛별'부터! '숨으라'고 하는데, '지향점'이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근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허용하나요. 바로 정답이네요.

한편 우리가 독해한 바에 따르면 '향기로운 싸릿순'은 사실 화자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슴'과 '토끼'에게 양보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선지가 답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네요.

⑤ 역시 전형적으로 우리가 직접 '해석'할 수는 없지만 '허용'할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 무언가를 '간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사늘한 가슴'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했으니 이를 근거로 저 '간구'가 곧 '사늘한 가슴'과 같은 상황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한 [B]의 '노래'의 경우,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도는 식으로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상황이니 그때의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무엇'이 오지는 않았으니까요.

1번 선지와 5번 선지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한편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선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문학 기출문제를 풀면서 해 주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공부는 이런 '허용 범위'의 파악이에요. 평가원은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떤 내용까지 허용을 해 주는지! 이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 3 ⑤ (풀이 순서 : 2)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3%	6%	4%	82%

① 나무의 '들뜬 뿌리'는 도시에 억지로 적응하고자 하는 나무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근거해서 말이죠! 화자는 여기에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으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② '내성'이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적응'을 허용할 수 있겠고, '이 파리'가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③④ '시끄러운 가로등 곁'이라는 도시 속에서 '신경증과 불면증'이라는 고통을 견뎌 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나무가 적응하지 못한다구요? <보기>에서 분명 '나무'는 도시에 억지로나마 적응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 '차욕으로 푸르다'인데, 적응하지 못한다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죠.

### | 핵심 point |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 ② 현대시 독해 : '실전'에서는 큰 틀만 잡고 읽은 뒤 선지 판단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독해를 진행하면 되지만, 실전에서 이러한 독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소 '사후적 독해'를 연습해두어야 합니다.
- ③ 문학의 독서화 : 문학 문제를 풀 때도 독서 문제를 풀 때처럼 '선지에서 묻는 것 생각하기', '독해해서 의미 추출하기' 등의 태도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최근 더욱 강화되는 경향 중 하나예요!